



## 서울에 울려 퍼진 사드 배치 반대 '절규'

오늘 대구광역시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식 & 이종승 회장 취임식



성주 어제는 후보지  
오늘은 바로 최적지  
이런 식으로 발표...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성주민심이 대폭발했다. 성주 사드민란이 대한민국을 시위광풍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드배치 반대를 목 터져라 외쳤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21일 오전 성주군 성주읍 성박골 등에서 5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집단 상경했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평화·문화 집회를 벌이기 위해서다. 오후 1시40분, 서울역 광장에는 대형 버스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50대의 버스가 모두 도착하진 않았지만 먼저 도착한 군민 100여명은 집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집회 참가자는 점차 늘어나 주회 측 추산 2500명(경할 추산 2000명)

이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저마다 외부 선동세력이 아님을 상정하는 '파란 리본'과 '벽진면 000' 식의 명찰도 착용했다. X표시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김안수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라는 실수를 모두에

게 알리고 반드시 철회할 것을 알리고자 천리를 달려왔다"며 "어제는 후보지, 오늘은 바로 최적지,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김 공동위원장은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가 현장 방문 한번 없이 책상 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주거지와) 1.5k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들여놓을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은 (사드배치 지역) 5km 이내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설치했다"며 "일본은 열다섯 번의 주민 설명과 시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아들, 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생업도 놔두고 처절히 투쟁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색깔까지 입히고 있는데, 성주군민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이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향곤 성주군수는 투쟁사를 통해 "성주읍에 와보면 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라며 "주민 절반인 2만5000명이 거주하고 550여개 기업체가 힘차게 가동되고 있는 성주읍 바로 코앞에 사드가 배치된다니 이게 어떻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군수는 "일부에서는 터전을 지켜내려는 우리 군민의 순수한 행동을 지역이기주의, 남비다 매도하고, 외부세력이나 종북이니 하며 성주를 고립시키려 하니 참담하다"며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고 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투쟁사를 마친 김 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 회 의장은 사발식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온 X표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5분 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조여은·박노균기자



### 알립니다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하는 대구광역시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22일 오후 6시30분 대구 뉴신라웨딩 3층 컨벤션 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본지 이종승 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광역시일보는 1996년 7월 11일 창간해 '대구 경북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강산이 두번 변한 20년 세월 대구광역시일보는 대구 경북 삶의 기록자이자 나침반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넘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또 한번 힘차게 도약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역사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라진 신문은 수천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살아남은 신문은 2%가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일보 가족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 갑니다. 대구광역시일보는 돈도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지만 새로운 신문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열정하나라도 경영진을 비롯,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오늘의 대구광역시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강한신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시고. 대구광역시일보는 어떤 변화와 도전에도 두려움 없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기념식 일시: 7월 22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대구 동구 신천동(299-1) 뉴신라웨딩 3층 컨벤션 홀 문의: 대구광역시일보 경영지원과 (053)253-0000

##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군 개별활동 안돼

道, 대구공항 이전 관련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북도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시·군 개별활동 안된다고 못 박았다. 도는 21일 오후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항이전 현안과 상황 파악, 공동 대응 방향 협의와 더불어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시와의 큰 틀에서 협력 추진을 강조, 향후 추진전략과 대응방안들을 논의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대구경북 공동발전 차원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방법, 절차와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고 과도한 대응은 국가적으로나 지역발전 차원으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식, 세부절차 확정 전까지는 유치·반대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시·군 개별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에서 정부추진 상황과 연계해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공동 대응 협력하도록 시·군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결단한 국책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에너지 통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대구임업에서 대구공항 이전은 최대의 숙원사업이다. 때문에 경북도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 조만간 대구시와의 협력창구를 개설,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한다.

이제 막 정부 T/F팀이 구성돼 첫회의를 한 상태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면서 대구경북의 입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정부 T/F팀에 참여해 공항이전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안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자체 공항추진기획단(T/F)을 가동시킨다. 10명 규모로 꾸러지는 기획단은 공항이전 절차 대응과 정책조정, 정부지원 업무와 함께 각종 영향분석과 부지선정, 공감대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열린 정부T/F팀에도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 대구경북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미, 경산, 영천, 군위, 의성, 예천 등 6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박재성 기자

flower 대구의 푸리 달성 꽃피다

대구광역시달성군 www.dalseong.daegu.kr

# SUMMER DALSEONG

달구벌의 깊은숨결이 스며드는 달성으로 오세요

대구광역시일보를 사랑하는 달성사람들

# 성주군민들 가슴에 ‘파란색 리본’ 단 이유는... 사드반대

서울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연 경북 성주군민들이 파란색 리본과 카드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주군민 2000여명은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성주지역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가슴에 파란색 리본을 달았다.

군민들은 “파란색 리본과 파란색 카드는 ‘외부 개입’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노랑색 글씨는 성주를 대표하는 참외를 뜻한다”고 했다.

상경 집회 전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이하 성주사드투쟁위)는 SNS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전하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들과 함께 수작업으로 파란색 리본 4000여개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사드투쟁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다행히 오늘 집회가 작은 불사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며 “파란색 리본과 메시지 카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색상이었다”고 말했다.

## 사드 반대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성주 주민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이후 김향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 의장, 이재복 성주사드투쟁위 공동위원장 등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TK출신 국회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성주 주민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외부인의 참여로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논란 때문에 이날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자 주민들에게만 지급한 파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집회를 진행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가장 중요한 건 성주 주민 의견”

“환경영향평가 절차 반드시 밟을 것”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의 주민들이 21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 결정 반대 집

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군민들의 반대 집회 개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

조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지 공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한·미·간, 유관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부지) 설계도를 만드는 데 수개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수개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성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지역에 대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것이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비행거리를 줄이는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할 경우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요격 범위(요격 고도 40-150km)를 벗어나 우리 후방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할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특정 지역(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의 미사일방

어(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MD 체계 편입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MD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운용, 예산 투입, 교육·훈련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핵실험장의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해 5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뉴스스

## 야권, 차대통령 NSC 발언에 ‘맹공’

더민주 “차대통령, 거꾸로 국민에게 호통”  
국민의당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정의당 “노골적인 공안정국 조성”

야권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회의에서 “사드 배치 외에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불순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비난과 저항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합당한 의견 제시를 비난과 저항,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조급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와 거يرو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난과 저항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는 박 대통령 NSC발언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흔들려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설득할 생각도 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순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 “노골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할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독단적인 태도를 넘어 국민을 ‘불순하고 반정부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또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낚는데, 참으로 생뚱맞고 무책임한 말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더이상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 국민과 야당에 옥박지르기 전에 지금의 사태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스

## 국민의당 “사드 뒤집을 방법은 국회비준 뿐”

당사서 자체 필리버스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참여

국민의당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에 임한 김성식(사진)·장정숙·김종화·조배숙·최경환 의원은 각자 정부의 발표 절차, 사드 실효성,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을 거론하며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김성식(사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안보는 중요하지만 단순히 무기체계에 국한된 안보가 아닌 아주 포괄적인 안보여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북핵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중국”이라며 “6자회담,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각종 제재 등에 있어 우리는 중국에게 동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동북아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사드배치로 인해 대북제재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고 나아가 북한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북핵 억지를 위해 도입한 사드가 핵무기를 키워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드가 실제 배치되면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배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 비준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에서 방대한 국방 지식을 얻었다”며 “정부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너무나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통보했으니 내가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발표를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정부 편향의 종편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어쩔 때는 과격시위를 유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반대 의견을 종북좌파로 몰고 강경진압과 주동자 구속으로 끝낸다”며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 그간 노동시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응 공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현 정권에선 중요한 문제만 생기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 일정이 공식에 새겨 포함됐다”고 사드부지 발표 직후 몽골 순방에 들어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중회 의원 역시 “국민의 아픔을 진솔한 마음으로 보듬기보다 사드배치 반대를 정쟁으로 내몬 채 국제회의를 핑계로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을 내던진 것은 국민을 무시한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협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민들과 만나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호기스럽게 말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조배숙 의원은 “저는 사드배치의 의미를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사드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의원은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3년 발간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를 인용, “보고서에는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드는 수도권 방위를 할 수 없는 무기”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와 미사일 대응에 대한 실험으로 사드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사드 무용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24%로 압도적 1위”라며 “그 중국이 사드배치에 가장 반대하고 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우리 정부 각료들은 모두 중국의 무역과 관광 등 경제보복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말했다”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논리를 보탤었다.  
최 의원은 “중국은 매우 자존심이 세고 높다”며 “대중 무역억자를 내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코앞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점을 배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0년 마늘과등을 기역해야 한다”며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해 한국이 관세를 10배로 올리자 중국은 즉각 한국산 전자제품과 폴리에틸렌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마늘 수입액은 1,000만 달러였고 전자·폴리에틸렌 수출액은 5억 달러였다”라며 “한국은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무려 50배의 경제보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한중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였고 홍콩을 포함하면 31.8%였다. 한국 호텔 고객의 25%는 중국 관광객이고 면세점 고객의 80%가 중국 관광객인 이유”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는 휘청거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오후에도 소속 의원들의 참여로 자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오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뉴스스

## 더민주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배치 반대”

“긴급현안질문 과정서 정부 무책임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국회 내 사드배치와 관련된 특위를 설치해 가동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사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이틀간에 걸친 사드배치 관련 현안질의 과정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날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자초한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드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일말의 예의조차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궤변으로 일관한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놓아 과연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답다는 세간의 비난을 자초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와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순된 모습은 국민의 대정부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뉴스스

# 대구시 안심뉴타운 개발 암초 만났다

## 대구과학관-대경침복재단, 과학문화 확산 협력

대구시의회 건교위  
안심뉴타운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주문



조성세 대구시의원 김창은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가 안심뉴타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구시를 옥죄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구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구 안심뉴타운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동구지역 숙원사업인 안심 뉴타운 이전을 통한 안심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유통상업용지를 3개 필지 정도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통상업용지가 대형 단일필지로 너무 커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심뉴타운 유통상업용지가 단일필지 7만 2630㎡로 안심뉴타운 면적(36만1000㎡)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성세 위원장은 "이미 안심뉴타운 인근에는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이 6-7개나 된다"

며 대형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대형 유통상업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을 빨아들여 저승사자로 통하게 된다"며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창은 의원은 "7만㎡가 넘는 단일필지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이 국내에 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몇 군데 업체가 담합하거나 응찰을 포기하면 거의 조성비가 수중에 낙찰을 받게 되고 결국 유통상업용지는 싸게 팔아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은 일반 시민에게 지우는 부조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조여은 기자

과학대중화 위한 실질적 협력

### 발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의료과학은 미래 먹거리가 될 거대한 시장이며 도전할 목표"라며 "과학관에서 의료과학의 꿈을 키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침복재단이 의료산업의 글로벌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국립대구과학관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0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을 비롯해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시설의 상호 활용 및 지원, 첨단 의료산업 분야 과학관 내 전시시 협조, 과학관 내방 청소년 대상의 의료산업 분야 특강 지원, 과학문화 확산 및 의료산업 발전 관련 행사 공동 주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신약,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협력 등 과학대중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덕규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은 "과학관에는 다양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학교 밖 과학교육 기관"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과학에 꿈을 품은 학생들이 과학관에 와서 최신 의료산업을 배우고 진로체험

# 대구시, 'Pre 스타기업' 61개 기업 선정

선정기업, 대구시로부터  
다양한 정책지원 받아

대구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 유망 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업으로 육성하는 'Pre-스타기업 육성사업'에 61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기업을 대구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작년부터 추진한 'Pre-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첫째 선정된 22개 기업의 매출은 29.6%, 고용인원 19.1%, 수출 11.0%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중기업 육성의 대표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부터 스타기업 운영체제를 혁신계획에 발맞춰 스타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군 확대를 위해 유망 소기업을 150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총량제 및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소기업을 핵심 중기업으로 육성하는 개편방

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번 'Pre-스타기업'의 선정에 따라 지역기업이 Pre-스타기업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인 스타기업으로 성장한 뒤 최종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나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단단히 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기업 육성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Pre-스타기업 선정에 위해 대구시는 지난 5월초부터 '15년 매출액 기준 50억 원 미만인 지역기업 대상'으로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위한 공고를 진행했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151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후 지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심사, 재무평가, 서면평가, 현장실태평가 및 종합심사의 평가를 통해 최종 61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평가에서는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유망 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이외에도 기업이 정신과 기술혁신 의지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했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기업 20개사(32.8%)가 Pre-스타기업에 포함됐고, 신성장동력 분야 성장기업은 13개(21.3%)가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Pre-스타기업은 자율경쟁 공모를 통해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등의 개별지원과 기업홍보 및 역량강화 지원, 핵심인재 채용 지원 등의 공동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의 지원시책인 PM(Project Manager)제도를 통해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의 지원수단을 공유해 기업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원스톱·실시간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Pre-스타기업은 최근 선정된 스타기업과 함께 지역기업 성장의 한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대구경제의 주역으로 반드시 육성시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Pre-스타기업 61곳은 스타기업 38개사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지정서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 대구시, 휴가철 감염병 주의 당부

여행객 개인위생 철저 당부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국내 및 해외 여행객들에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건강하게 휴가를 보낼 것을 당부했다.

휴가지에서는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 풀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기 활동시간인 야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및 방충망 설치 등을 통해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풀숲에 서식하는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서는 풀밭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고, 감염병의 유행지역도 넓어지며 종류도 많아지는 등 현지에 유행하는 질병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을 떠날때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를 방문해 유행중인 감염병 및 질병정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은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한 감염병(A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비롯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인플루엔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 예방접종과 말라리아 예방약 준비, 모기회피, 손 씻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손을 자주 씻고 낙타와 접촉을 삼가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 동북아시아는 일본뇌염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는 미리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 저온보관을 기본으로 하고, 60℃ 이상 가열처리와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김일만 기자

##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안전캠프!

80가족 280명 참가,  
각 분야별 체험교육프로그램 진행



2015년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안전캠프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대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안전캠프'가 23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장 일원(웅수동)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안전캠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총 80가족 280명이 참여한다.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된 안전캠프는 교통안전교육, 가스안전교육, 소방안전 실습체험, 긴급대피훈련, 건설안전체험, 응급처치요령, 학부모대상 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가족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

여해왔다.

이번 안전캠프는 23일 일일 안전체험으로 진행되며 캠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체험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등 전체 27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테마1·2관(지하철체험 등 12개 체험), 시청각교육 및 야외 안전부스의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투명우산 꾸미기와 손수건 안전무늬 염색 등도 마련돼 있다.

대구시 정명섭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캠프가 온 가족이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대구지역 대기측정대행업체 능력 양호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구지역의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분야 굴뚝먼지 시료채취 숙련도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숙련도시험은 매년 한차례 대기분야 측정

분석기관의 장비운영능력 향상과 측정분석결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대기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숙련도시험은 대구지역의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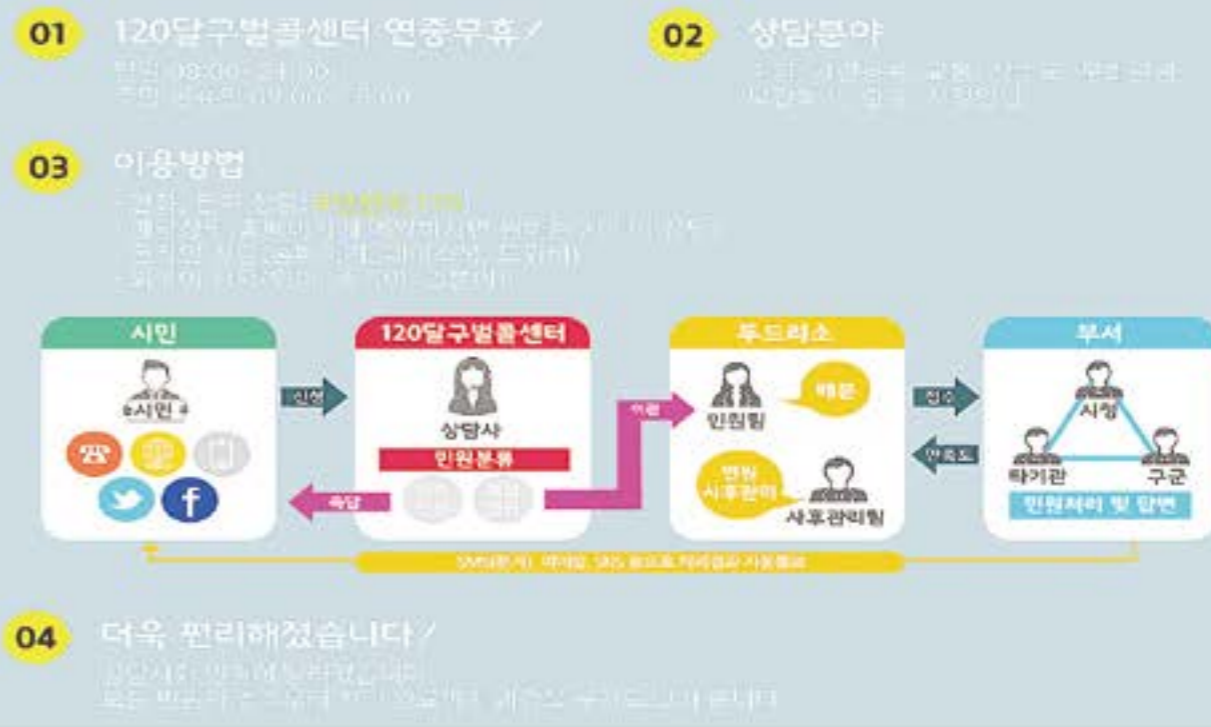
평가결과 지역 대기측정대행업체 모두 총점 80점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 '적합' 업체로 평가돼 측정분석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만 기자

# 전화 한통이면 OK!

# 120

## 달구벌콜센터



민원 제안여기다  
**투드리스**  
온라인 민원제안 대표창구  
투드리스 검색  
민원 및 모바일로 언제나 -  
http://daeguinfo.daegu.go.kr  
http://smart.daegu.go.kr





# 대구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7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김문오 달성군수는 22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재)달성장학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2일 오전 서남중학교 열리는 상중이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중박맞이 위문 행사에 참석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22일 오후 청소년창작센터에서 열리는 '동장 릴레이'에 참석해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현풍면사무소는 지난 20일부터 민원실에서 있는 민원대기 공간을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강북보건지소, '건강어울림 교실' 운영

강북보건지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건강어울림 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 2회(화·목)운영하는 이번 교실은 작업 치료학과 교수, 아동교육 전문가 등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될 예정이다.

강북보건지소는 발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발달과 창의력 향상, 부모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감각통합 교육을 위해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두부·카스테라 썰기를 비롯해 국수 나무 만들기, 신문지 다리 건너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재활운동을 돕기 위해 기초체력향상교육, 비백드민턴, 풍선배구 게임 등으로 구성했다.

서순에 강북보건지소장은 "건강어울림 교실이 장애아동의 인지기능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해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구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북구보건소는 21일 북구보건소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과 합동으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및 일반주민 50명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이론 교육과 동영상, 실습인형을 이용한 체험 교육

으로 진행됐다. 북구보건소에서는 현재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71곳 중 자동제세동기를 26개 아파트에 설치했으며 2018년 5월까지 나머지 아파트에 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일반시민들의 현장 응급대처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5000명 정도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응급을 요하는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일만 기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달성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이어 노사 합의 구·군 지방공기업 연쇄 도입 압박 심해질 듯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이어 달성군시설관리공단도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구·군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가운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처음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방 공기업에도 성과 연봉제 시행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9일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합의'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6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지난 12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직원설명회를 통해 직원 95%의 동의를 얻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이며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을 차등 폭은 직급평균 2%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15%이상 되도록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호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으

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에 따라 공평하게 보상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공단 발전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노사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공단 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발명 아이디어에 관심있으면 달서구로 오세요"

25일부터 학생 특허 출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달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웃는얼굴 아트센터 컴퓨터실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발명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초·중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학생 특허 출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기심 특목, 나도 이제 발명가'란 주제로 청소년들의 창의발명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steam)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충남대와 대전대 등 학생 특허출원 지도 분야의 전문교수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입체적 수업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특허출원지원 프로그램은 창의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멘토링 및 스케치(3D), 출원인 코드 발급, 특허명세서 작성법과 도면 작성 등으로 특허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아이디어 제품을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 보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이를 특허로 연결하는 이번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이 미래사회가 요구

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2010년 전국 최초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권 창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36건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50여명의 여성발명지도사를 배출했다. 또 중소기업 국내·외 특허출원 203건, 시제품 시뮬레이션 제작 22건을 지원했으며 매년 140회 이상의 창의발명특강과 창의 발명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달성군-농협달성지부,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협약



달성군은 21일 현풍면 오산2리 마을회관에서 농협 달성군지부와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주민과 농협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협대구지역본부 이탁구 본부장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상생을 모색하는 신(신) 농촌 운동으로, 앞으로 명예이장과 소속직원은 명예주민으로써 정기적·실질적인 마을 방문과 일손돕기, 자원활동 및 소득창출 등 마을 활력화를 주도하게 된다. 오산2리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이탁구 본부장은 "앞으로 농촌일손돕기는 물론 농산물 홍보·판매 등 마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농협과 농업인, 그리고 우리 군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활력 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대명2동 썸머 페스티벌 개최

대구교육대학교와 경북예술고등학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남구 대명2동에서 22일 오후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연다.

대구시 남구 대명2동주민센터는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대명어린이공원에서 썸머 페스티벌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시립예술단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무더위 탈출! 치맥파티'가 펼쳐지며 원목화분 만들기 DIY체험(선착순 50명)과 골목정원 만들기 꽃모종 나눔(행사 후, 선착순 300개)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대명2동 김용희 동장은 "특히 2016년 문화예술회관 찾아가는 공연 신청으로 이뤄진 만큼 폭염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 재능있는 차세대 작곡인재를 찾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2016대학생 창작가곡제 예선 참가자 모집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16 대학생 위한 창작가곡제'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구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작가곡제는 한국 가곡의 발전과 차세대 작곡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준비된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다. 응모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음악대학교 및 대학원 작곡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휴학 중이거나 유학중인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또 '2015 대학생 위한 창작가곡제' 수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을 위한 창작가곡제'는 여타 경연대회와는 달리, 프로 연주단체인 디오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성악가의 연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술성 있는 가사를 동반한 순수 창작 가곡 1곡을 피아노 반주로 준비, 악보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참가자들은 제출한 가곡을 오케스트라 연주곡 관현악곡으로 작곡한 뒤 11월 9일로 예정된 '2016 대학생 위한 창작가곡제'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다. 또한 본선 중 연주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네 곡을 선발, 상장과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누리집(www.daeguoperahouse.org)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하며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디오 오케스트라(053-655-1108)와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사업팀(053-666-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희 기자



## "삼계탕 드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수성구 지산2동 목련공동체와 새마을회는 21일 지산2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회원들이 마련한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를 위해 계림상회(대표 정종석)에서는 생닭 200인분(40만원상당)을 제공했으며 새마을회에서는 행사경비 40만원을 후원했다. 최윤희 기자

아주 20분, 1년 12권 책임지. 권익 1.44배 증가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책의 힘"

세상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며  
나를 반성하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회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8

## 안동서 '비바빠를라' 영화 촬영중 스태프 4명 교통사고

촬영중이던 택시  
화물트럭과 충돌

21일 오후 2시15분께 안동시 대화동 인근에

서 영화를 촬영중이던 택시가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티븐트맨과 스태프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영화 '비바빠를라'를 촬영하던 스티븐트맨과 스태프들이 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발생했다.

택시를 운전하던 스티븐트맨의 부주의로 갖길에 주차중이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촬영현장에는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직원들이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있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영화의 주요 촬영지는 인근 영양군이였다.

스태프들은 도심에서 불법유턴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해 이날 오전 안동을 찾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김용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2년 구형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정모(81) 이사장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3년, 벌금 2억원 구형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안동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선고를 주목된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규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

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정 모(81) 이사장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3년,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정 이사장 지시로 권 시장 선거캠프에 찾아가 직접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재단 산하기관 정 모(58) 원장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옷매무새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성실한 소명을 통

해 진실을 밝혀겠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 2시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 시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정 원장은 시종일관 권 시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정 원장은 "이사장에게 '그 동안 안동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선거기간 때 인사를 하려고 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권 시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말했다.

또 "당초 3000만-4000만원을 생각했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1000만원을 준비했다"며 "피지를 댄 뒤 고무줄로 500만원씩 묶어 봉투 2개에 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정 원장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지만 특정지어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원장이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권 시장과는 선후배 사이지만 어려운 관계라 전 화 또는 청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익계약 형태로 안동시에 전기배전반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규 기자

## 대구참여연대, 경대 비정규직 사태 市에서 해결하라

경대병원 주차관리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293일째 맞고 있어...

대구 참여연대는 경북대병원의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현재 경대병원 주차관리 및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는 293일째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해고 당사자들의 생활고는 물론 노사 갈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를 적대시하는 조병채 병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도 노사간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대병원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병원인 만큼 대구시의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대병원의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에서 대구시는 제3자가 아닌 만큼 이번 사태의 발생 및 해결에 책임이 있

며, 경대병원의 운영과 노사문제 등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성이 견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동안 권시장이 현장시장을 운영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책은 전임 시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는 실망스럽고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권시장의 현장행적, 비정규직 보호 시책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여은 기자

## 경북경찰, 사드반대 시위 외부세력 추가 포착

10여명의 외부세력이  
주민시위 가담한 것으로

성주에서 실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 당시 외부세력이 추가로 개입한 사실이 포착됐다.

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실시된 사드설명회 당시 김두현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주민시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

찰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드설명회 주민시위에 박철우 민중연합당 서울시장 공동위원장과 이상현 옛 통진당원, 변홍철 말양송전담대책위원장,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두현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의 외부세력이 주민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이 시위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시위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당시 시위 현장에서 있던 경찰

진술과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이들의 시위 가담여부와 시위에서 얼마만큼의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주민시위에 외부세력 가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 후 채증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당시 계란이나 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이다.

또 사드배치 설명회에 참석한 황교안 총리 일행이 탄 버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트랙터 운전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부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최대한 분석에 집중해 외부세력 확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 신임 순경이 버스서 의식없는 할머니 구해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전종덕 순경  
위급상황 할머니 심폐소생술로 구해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는 신임 순경이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대구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소속 전종덕(25)순경이 주인공.

21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2개월 전 정식 임용된 전 순경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파출소 앞에 정차했다가 출발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좌석에서 잠이 든 듯 쓰러져 있는 이 모(78) 할머니를 발견했다.

이 할머니는 당시 맥박과 호흡이 매우 약해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 순경은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119요원과 전화를 하며 이 할머니의 현재 상태와 반응 등을 공유했다.

이후 전 순경은 침착하게 이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이 할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다.

특히 이 같이 전 순경의 활약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대구경찰 페이스북에 공개됐고 3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전 순경은 "실제로 처음해보는 심폐소생술이어서 긴장했지만 꼭 할머니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며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

최유희 기자

## 대구경찰 간부 '카드깡 정직 2개월'

지인의 식당에서 카드깡 이용  
매일 지급되는 점심값 5000원  
에서 1만원 사이의 현금 쟁거

대구의 한 경찰간부가 카드깡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간부는 2012년 대구경찰청에서 경무계장으로 재직 당시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에 배치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간부로 드러났다.

21일 대구 경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비교통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 모(54) 경정은 지인의 식당에서 카드깡을 이용해 매일 점심값으로 지급되는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현금을 쟁거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경정은 올해 초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은 것처럼 속여 카드를 긁은 뒤 가게로 부터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임 경정은 지난 4월 이 문제로 인해 대

구경찰청 경무과로 부서를 옮긴 뒤 근무하다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경정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유에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경정은 2012년 대구경찰청 경무계장 재직 당시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에 배치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 경정의 아들은 2011년 8월 중순부터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1월15일 지방청 자경대로 소속 부대가 전격 변경됐다. 최유희 기자



'사드배치 반대한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한 성주 군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문경경찰, 여성상대 범죄예방 우표 제작 '화제'

문경경찰서가 성범죄 예방 차원의 '여성불안신고' 우표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이 우표는 점촌파출소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우체국에 20장 단위로 주문하면 의도하는 문안의 우표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여성 상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 이미지로 우표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우표 한장 가격은 300원 이지만 주문 제작시 600원 풀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40장을 제작했다.

우표에는 '여성불안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신고하세요'라는 문구를 새겼다. 우표가격은 '영원'이라고 쓰여 있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이 우표는 문경경찰서장 명의로 시민에게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에 부착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 성 기자





#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10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최상식 경주시장은 22일 오후 나선화 문화재청장, 김석기 국회의원 동행 '경주읍성 문화재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임광원 울진군은 22일 오후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조 직소통 한마당'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은 22일 오후 영덕문화원 강의실에서 개최하는 '경북 선비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한다.

## 경주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 전면 개편

경주시는 시민들이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시청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21일 영상회의실에서 박기도 시민행정국장, 각 공공시설 운영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용역결과 보고, 개편 누리집 시연, 실무자들의 의견청취 및 운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 예약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며 시험운영을 통해 수정·보완해 오는 27일 정식 오픈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모바일 또는 PC에서 인터넷 접속 후 주소창에 [www.gyeongju.go.kr](http://www.gyeongju.go.kr)를 입력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경주공공서비스'를 검색, 접속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 경주시, 바른 땅 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불부합지 공부정리, 경계 확정

경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한

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조정금 이의신청의 건, 조정금 산정 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4만9925㎡)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윤용찬 기자

# 동해안 원자력과학단지, 미래 에너지 클러스터

## '원자력 산업과 정책' 교육 열려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과 동해안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경주시는 국내·외 원자력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산업과 정책'

교육이 21일부터 이틀간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4회째로 원자력과학단지유치위원회와 경주시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원자력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미래원자력 기술개발과 동해안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자력의 안전성과 방사선의 인체 영

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1일에는 '한국의 근대화와 원자력의 역사', '원자력산업 발전과 경북의 역할', '미래 원자력과 환경', '세계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동향과 시사점', '정보화 혁명 시대, 인간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22일에는 '인류의 도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한국 원자력기술의 수출 성과와 경쟁력',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원래 원자력과학단지 경주유치추진단은 "시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가 동해안 원자력과학단지 조성의 기본 전제가 된다"며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열어 원자력 에너지강국의 국민적 자부심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고래불해수욕장서 전국비치사커대회 열린다

제5회 영덕군수배 고래불비치사커 전국대회, 40개 팀 1000명 참가

영덕군이 주최하고 병곡축구클럽이 주관하는 '제5회 영덕군수배 고래불비치사커 전국대회'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특설구장 백사장에서 전국의 40여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여름을 젊음의 열기로 승화시킨다.

이번 대회는 병곡축구클럽(회장 김영광)에서 주관하며 남자부 36개팀이 8개조로 편성돼 다음달 6일 예선을 치른 후 7일은 16강전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특히 영덕지역을 찾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영덕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승팀 등에 지급되는 상금의 약40%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주민과 함께는 대회로 치르게 되며 우승상금은 500만원, 준우승 300만원, 3위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참가비는 팀당 10만원으로 전국 비치사커대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이다.



대회기간 중 병곡축구클럽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의 청년회 등 사회단체와 협조,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고래불해수욕장운영위원회 이준석 위원장은 "비치사커는 모래사장에서 하는 스포츠로 여름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보기 드문 운동 경기로 고래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

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전국각지에서 고래불해수욕장을 많이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군수배 비치사커 전국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고 있으나, 실제적인 대회가 치러진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돼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고 한다.

김승건 기자

## "포항의 미래는 여성리더가 활짝 열어갑니다"

포항 여성 뉴리더양성교육 수료식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선린대학교 믿음관에서 제20기 204 포항 여성뉴리더 수강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세계는 지금, 여성 정치인들의 위기해결 능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산업근대화 '영일만의 기적'을 일구어 낸 우리 포항의 중심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가 스며있으며 말한다.

이어 이 시장은 포항은 지난 40년간 남성중심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도시발전을 이뤄왔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부양하는 미래 포항을 위해서는 노동력보다는 감성과 소통, 창의력 등 '소프트파워'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성리더들의 장점과 포항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여성리더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포항의 방향제시와 함께 △오랜 집단민원의 소통

을 통한 해결과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지속발전 가능한 신산업육성 사업, △환동해 중심 해양물류관광도시를 향한 추진사업 △사람중심의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인근도시 간 상생 협력발전 추진 계획 등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의 시정추진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우리 포항의 여성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역할과 책임의식을 통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가는 여성리더로서 우리 포항이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로의 발전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4 포항 여성뉴리더 양성교육은 지난 1997년부터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을 선도하는 여성뉴리더 양성하는 과정이다.

신용승 기자

## 울진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20일 앞두고 막바지 점검

울진군은 다음달 1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20일 앞두고 성공적인 제전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달 13일 D-60일을 맞아 추진실적 및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및 남은 기간중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살폈다.

특히 제전의 성과를 좌우할 공식행사 연출, 교통대책, 음식 및 숙박대책, 환경대책, 의료지원, 체험행사 안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제전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양스포츠제전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형삼 기자

## 울진군, 엑스포공원 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임시 개장



울진군은 엑스포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한 놀이시설은 엑스포공원 동물농장 뒷편 2500㎡ 면적에 미니기차(12인승) 1대, 헬리콥터라이더(8인승) 1대, 배터리카(1인승) 5대, 고정라이더(1인승) 3대로 구성 돼있다.

시범 운영기간은 오는 26일-다음달 15일까지 21일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향후 본격적인 운영에 반영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엑스포공원사업소 (781-2005)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형삼 기자

Korea Sparkling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

#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울릉도·독도로 오세요.

울릉군  
www.ulleung.go.kr

#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11

## 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교육 실시

칠곡군은 지난 20일 실·과·소, 읍·면 세외 수입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정기 인사로 인해 실·과·

소, 읍·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많이 변경돼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의 중단없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칠곡군은 지난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으며 2016년으로 이월된 누적체납액 50억3800만원의 27.9%인 14억6000만원을 상반기에 체납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은진 기자



##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영석 영천시장은 22일 오후 보현산천문과학관 마당에서 열리는 제1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기념식에 참석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22일 오후 가얏고마을에서 열리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건강리더 워크숍에 참석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2일 오전부터 주유사업장을 방문하고 공사 진행사항과 안전 사항을 점검한다.



### 영천시, 하절기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 현장 집중 점검

영천시는 농축산물이 변질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하절기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농축산물 급식센터,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 등 관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취급 6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행위 및 용수 관리실태 점검, 조리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친환경인증 및 원산지 표시 여부, 식재료 보관·배송 등 유통 안전성,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급식센터 가공시설 위생점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일만 기자

# 영천 밤하늘 별을 따라 신비의 우주 속으로

## 제13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다양한 전시·체험행사 마련

국내 유일의 천문·우주·과학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밤하늘 별을 따라, 신비의 우주 속으로!'라는 주제로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현산천문과학관 야외마당에 상시적으로 천문·우주·과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면적 450㎡ 규모의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이 신축돼 축제관람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케치 우주체험, 가상 우주체험, 과학소통 강연, 산자연중학교 과학체험, 태양광자동차타기 체험, 신기전 체험 등 신규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축제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최대천문대인 국립보현산천문대도 전시실을 개방하고 스타 파티(야간 별 관측), 담력 체험 등의 야간프로그램도



그럼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한여름밤의 더위도 날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제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해 행사장 중앙 및 가장 자리에 휴식공간을 확대설치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보현산천문대), 산자연중학교 등 후원기관들의 축제참여를 확대해 더욱 알찬 과학 체험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별빛축제의 주 행사장인 축제 주제관에서는 미래우주선, 화성구, 우주인 모형, 에어로켓, 별자리돌, 우주학습관, 로켓기둥, 유인조정장치,

로보볼 등 천문·우주·과학 관련 조형물 전시와 핀스크린, 자이로스코프, 떠다니는 자석, 텐테이볼, 전자펜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영남최대 800mm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에서는 5D시뮬레이터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고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에서 다양한 천체관측이 가능하다.

축제기간 동안 주무대에서는 버스킹, 디쇼매지, 과학소통강연, 매직퍼포먼스, 버블쇼, 아카펠라&뮤지컬넘버, 저글링, 마임공연 다양한 공연과 천문우주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일만 기자

## 청도군 신화랑단 캠프 개최

### 화랑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실천덕목(화랑정신) 직접 경험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오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경북도청도학생수련원과 운문사 일원에서 '화랑의 숨결을 느끼다-세속오계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청도군 신화랑단 캠프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청도군과 경북도청도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청도군 신화랑단 동아리 초·중·고교생 157명과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함께

참가, 각종 미션을 통한 사군이춤, 사진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의 화랑정신 체험, 운문사 일원의 화랑 옛길탐방, 화랑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명상 등 삼국을 통일한 화랑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실천덕목(화랑정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청도군 신화랑단은 지난해 3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과 청도교육지원청의 협력 시책 사업으로 창단돼 올해에는 관내 22개 초, 중, 고등학교가 참가, 22개 동아리 358명이 구성됐으며 화랑의 기상을 이어받아 올바른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을 함양코자 운영되고 있다. 강용규 기자

### 칠곡군, 추석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칠곡군에서는 2016년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대비 운전자금 융자추천 규모는 총 437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칠곡군에 분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1년간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추천된 업체는 추천서를 지참해 융자 신청전 협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누리집 기업지원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칠곡군 경제교통과 투자통상담당(979-6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 영천시농기센터-코레일 영천관리역, 업무제휴 협약

### 농특산물 홍보, 철도여행 상품 개발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레일 영천관리역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수익증대 방안 도모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 주요내용으로 영천시는 영천역광장 가꾸기 지원 및 철도여행상품 개발에 협력하고, 코레일 영천관리역은 영천시 행사



(축제 등)시 역광장 활용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지원, 와인산업 발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일만 기자

## 경산시, 맞춤형 급여 1주년 성과, 신청 홍보

###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정책으로 맞춤형 급여제도를 1년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에 지원을 받게 하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경산시에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1년이 도래한 현재 수급자 수는 8460명 개편 전 7473명으로 제도시행 후 새롭게 보호 받는 신규 수급자 수가 1074명이 늘어났다.

이는 일선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새벽, 주-

야간에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바로 뛰는 숨은 노력에 힘입어 도움이 필요했으나 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소외됐던 사각지대의 많은 분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다.

경산시에서는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중, 수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규수급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 점화의 계기가 됐다. 신경운 기자

새로운 100년 시작되는  
희망의 땅 칠곡

호국의다리  
칠곡박물관  
호국평화기념관

칠곡군 CHILGOKGUN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12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22일 오전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9회 대통령급 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2일 모동면 장터에서 개최하는 '2016년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모동면)' 행사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1회 경북여성농민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오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리는 군위자주 홍보 및 판매행사에 참석한다.

## 군위군,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현판식 개최



군위군은 경북지역의 경제교육을 담당하게 될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현판식을 20일 군위국민체육센터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군위군수, 정성광 경북대 의부부총장,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대구 경북경제교육센터에서 분리돼 새롭게 문을 연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는 오영수 경북대학교가 센터장을 맡고 경북지역의 초·중·고생, 교사, 청소년, 소외계층,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은 물론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대한 경제교육의 중심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대구경북경제교육센터에서 실시한 경제교육인원은 연 2만여명에 이른다. 박재성 기자

## 상주시, 휴가철 맞이 특별 공직감찰 실시

상주시는 하반기 정기인사, 하계 휴가실시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별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감찰은 공보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6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 시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적발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우고하

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은 20일 읍면동 부읍면장, 총무담당을 대상으로 PC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음주운전, 금품수수, 도박, 소극적 업무처리 등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은 "하반기 정기인사와 하계휴가 실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인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 한 건의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군위자주, 롯데백화점 전점 출하

## 22-23일 수도권 고급시장 소비자에 품질우수성 홍보

군위군이 22일부터 이틀간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대대적인 군위자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22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본점(서울시 중구남대문로 81)에서 시작될 이번 행사는 지역 제철 농산물인 자두를 비롯, 찹 옥수수, 햇사과, 표고버섯, 블루베리, 축산물 등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출하가격도 20일 5kg

자두 상품기준도매시장 2만2천원대 대비, 백화점 납품 2만5천원을 보장, 더 높은 가격을 생산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올해는 양호한 자두 생산환경과 전국적으로 증가된 재배면적으로 지난해 보다 20%이상 출하량이 늘어 전년 4만원대를 호가하던 5kg 상품 '포도사'가 올해 2만원대를 간신히 넘어서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위군은 군위농협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행사가 자두생산 농가에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수도권 등 대형소비처에 얼굴을 알리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는 자두의 생육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가지고 있고 선진농법과 우량농자재 지원 그리고 공동선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품질의 자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도시 시장에 대한 이해와 교섭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특산물인 생대추 등 타 품목으로 범위를 확대, 지속적인 안정적인 출하시장을 열어 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 현장자문

의성군은 21일 오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김정연 단장 외 3명)이 의성읍을 방문,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PM단, 도청 및 군청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중앙계획지원단 현장자문은 의성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청취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계획수립 지원방안을 정립한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업비 80억원)은 현재까지 PM단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의성군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워크숍, 심화토론,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계획지원단의 자문과 수정·보완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 구미시, 어린이집 아동 인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 도내 7개 시·군 인성교육강사 60여명 대상 양성교육 실시

구미시는 21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도내 칠곡군 등 7개 시·군 어린이집 인성 강사 60여명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삼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강사 활동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정정희 교수의 유아 발달과 인성교육, 유아놀이와 교수-학습방법, 위덕대학교 김수향 교수의 인성교육 활동방법의 실제, 분야별 강의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 인성교육 추진 자문위

원 15명이 참석, 인성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개별 시범강의 발표시간을 가져 참석자로 해금 알찬 교육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어린이집 인성교육 사업은 조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별 매월 1회 실시하며 집합교육, 야외활동, 체험활동 등 자유로운 교육방법과 분야별 강사 인력풀 구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성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준비한 경북도와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참석한 어린이집 인성교육 강사에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는 영유아수 3만348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어린이집 501개소에 1만3678여명의 영·유아들이 재원하고 있으며 3229여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안심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 문경시,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열린다

## 22-25일 문경실내체육관서 개최 전국 158개팀 1500여명 선수 참가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문경실내체육관 특설 씨름장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일반부 체급별로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통합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씨름협회와 문경시체육회 주관하에 전국에서 158개팀 1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23일 오후 1시40분에 고윤환 문경시장, 최효일 국회의원, 김지현 문경시의회의장, 고우현 도의회 수석부위원장, 박두진 통합씨

름협회장, 김형수 경북씨름협회장,이재석 문경씨름협회 명예회장, 정지대 문경씨름협회장을 비롯한 씨름관계인사 및 시 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대회 기간 중 3일간(23-25) KBS N Sports를 통해 매일 오후2시부터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화와합과 지역홍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인 문경을 찾아 주신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선수들이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아울러 문경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성 기자



## 상주시, FTA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상주시 모서면에서는 오는 29일까지 민사무소에서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FTA피해보전 직적직불금으로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품목과 FTA폐업지원금으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을 신청받고 있다.

모서면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품목은 주소득자물인 고랭지 포도로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522건 및 포도폐업이 58건이 접수됐으나 2016도는 20일 현재 피해보전직불금 480건 및 폐업지원금 80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9까지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잉가격전망 7월호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전년대비 생산량은 5.5%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은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2015년도 1인당 6만5000원에서 2016년도 7만5000원으로 향상돼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로 타작목 전환을 위한 폐업지원신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허남영 모서면장은 "우리지역의 포도 재배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주가 고령인 한계농업주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작목전환에 있어 복숭아, 사과로 집중이 되고 있어 농가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  
www.usc.go.kr

## 의성 최고 농산품에게만

# “의성품”

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상기품은 의성군

**의성군이 보장하는 '의성 진' 이제 믿고 구입하세요!**

의성의 '의'는 의성 고을에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내리쬐는 태양을, '성'은 의성의 비옥한 토양을, '품'은 태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위치한 의성의 지리적 특성과 청정한 자연 속에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을 품고 자란 함으로 좋은 의성 농산품의 환경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마크를 구성하였다.

의성마늘 의성사과 의성쌀 의성자두 의성복숭아

# 경북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13

## 봉화군·봉화군의회·농업인단체 간담회

봉화군농업인단체와 함께  
지역농업 발전 방안 모색

봉화군과 봉화군의회는 봉화농업협회의소  
등 5개 농업인단체 대표 등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지역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인단체에서 제시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현안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다변화하는 농  
업여건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농업현장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봉화농업이 가야할  
방향과 농업분야의 위기를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봉화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노옥 군수는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반영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농업인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봉화농업에 선도  
적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장욱현 영주시장은 22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영주시 지역자율방재  
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22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되는 '음식다미방 홍보  
를 위한 특강 및 시식연'  
에 참석한다.

### '安東郷校舊址' 안동향교 옛터 표지석 설치



안동시는 지난 18일 시청 앞마당에 안  
동 지역의 유학 교육과 보급에 힘써 지금  
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안동향교의  
옛터를 나타내는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은 높이 1m, 폭 1.4m, 무게 2t의  
자연석에 사람 손으로 직접 글씨를 새겨  
넣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安東  
師範(안동사범)·安東教育大學(안동교육  
대학)의 옛터를 기억하고자 문인들의 아  
쉬운 염원을 담아 세워진 교석비(校蹟碑)  
도 함께 하고 있다.

안동향교의 건립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  
지만 고려 말에 지금의 안동시 명륜동 지  
리에 창건됐고, 그 규모가 영남지방에서  
가장 컸다. 일제강점기에 탄압을 받으면  
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으나, 6.25전쟁 때  
모두 소실돼 1986년 뜻있는 어른들에  
의해 현재의 위치인 안동시 송천동에 터  
를 잡고 다시 중건됐다.

안동향교는 건립 이후 많은 유학자들을  
배양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중등 교육의 중  
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도 예안  
향교와 더불어 유교의 옛 성현을 받들면서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날로 쇠퇴하고 있는  
유학의 풍습을 진작하고 이를 계기로 향  
교와 유학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오늘의 이 표지석  
설치가 자연석 하나를 세우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교의 부흥과 유학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미  
를 부여했다. 김용구 기자

# 안동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직거래 활성화로 안동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득 증진 효과

안동시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  
자와 소비자 간 권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송파구  
청, 구로구청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21회  
참가해 4265만원의 매출(6월 기준)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안동시와 서울특별시 간 우호교류업무협  
약(MOU) 체결을 통해 서울 농부의 시장에  
안동 농특산물을 입점해 서울시민들에게 안  
동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안동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  
농상생 직거래장터 참가를 통해 대구시민 및  
출향인들에게 안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

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두류공원 직거래장터 및 대구  
MBC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참가를 통해 안동  
산약, 밤꿀, 야생화꿀, 아카시아꿀, 프로폴리  
스, 강남콩, 녹두, 고춧가루, 참마타래 등을 선  
보여 큰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도 안동 농  
특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월영교 주차장 내에 안동마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안동산약, 참마타래, 안동소주, 마분  
말, 마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을 홍보 판매 중  
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농특산물 직거래 활  
성화로 안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  
산자와 소비자 간 권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안동시에서  
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 중국 동천시 우호대표단 봉화군 방문

봉화군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동천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봉화군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섬서성  
(陝西省) 동천시(銅川市) 우호대표단이 21일  
부터 24일까지 봉화군을 방문했다.

정치협상회의 주석 장인풍 등 6명으로 구성  
된 동천시우호대표단은 우호교류 협정서 체  
결을 통한 양자치단체간 우의를 다지는 한편

봉화군의 노인복지시설 및 목재문화체험장,  
약초시범장 등을 방문했고 봉화군의 문화유  
적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또한 우호교류협정서를 통해 상호간 전문  
가를 교환하기로 해 농업기술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판로 및  
농업기술 분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 동천시와의 우호대표단교류는 지난  
1994년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상

호간 15회 실시했으며 우호대표단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학생교류, 문화체육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우의를 다지고 있다.

향후 중국 동천시 우호학생교류단 14명이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우리  
군에 방문해 국제화시대 학생들의 국제적 마  
인드 제고와 양국의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기 기자

### 영양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위원회(위원장 박종태), 실  
과단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갖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군정 10년의 약속, 한 일도 할 일도 많았습  
니다"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5  
대 목표 25개 핵심전략, 79개 단위사업에 대한  
민선6기 전반기 추진성과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추진성과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개최의 의미가 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79개 사업 중 지난해 7  
월 24일 보고회 개최 시 정산 추진 60개 사업,  
부진사업 19개 사업과 비교해 3개 사업이 완  
료됐고, 68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8  
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문화유산 데이터베  
이스 구축, 반딧불이 생태마을 활성화 및 밤  
하늘 보호구역 지정 사업으로 특히 국제박하  
늘 보호구역 지정 사업은 아시아 최초, 세계 6번  
째 국가이면서 29번째 국제박하늘보호공원  
(IDSPark)이라는 점에서 청정 영양의 이미지  
를 대외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종태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위원장은 새로  
운 영양 건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영양  
건설의 완성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및 군  
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  
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  
아줄 것을 당부하며, 민선6기 내에 공약사업  
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영동 기자

### 영주시, 숲속 달리며 힐링하고 치유한다



#### 2016 코리아포레스트런 영주대회

영주시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동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이틀간 영주 소  
백산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16 코리아포  
레스트런(koreaforestun) 영주대회'(www.  
koreaforestun.com)를 개최한다.

'2016 코리아포레스트런 영주대회'는 산림  
청이 조성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관리  
하는 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의 개장 기념으  
로 열린다. 코리아포레스트런 영주대회 참가  
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립산림치유원의  
숲길을 뿔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 대회는 42km, 10km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자는 숲길을 뛰는 대회 이외에

도 1박 2일 산림치유원에서 숙식을 하며 치  
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신나는 힐링 산림문  
화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당일 참가  
코스도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2016 코리아  
포레스트런(koreaforestun) 영주대회'의 공  
식 누리집(www.koreaforestun.com)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박 2일 15만원, 당일참가자 10만  
원이며, 가족을 동반할 경우 1박 2일 참가자  
가족은 1명당 6만원, 당일참가자 가족은 1명  
당 3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제공하  
는 최고의 숙박과 식사 2회, 수치유센터 무료  
이용, 치유장비 무료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전성기 기자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손님 맞을 채비 완료

예천군은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21일 오후 예천공설운동장 곤충엑스  
포 주행사장에서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실시  
했다.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기 위해 이현준 군수와 실과단소장, 읍면장은  
엑스포 주행사장의 시설·전시·운영 등 행사  
장 구성과 주요 동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울러 부행사장인 곤충생태원, 곤충나라 사과  
테마파크의 각종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점검은 각 전시관의 전시연출 및 운영,  
임시주차장, 안내소, 프레스센터 등을 둘러보  
고 미아(노약자)보호소, 물품보관소, 물품대  
여소, 무료수유실 공중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  
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점검했다.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으로 다하지 못한 부분을 남은 기간 철저  
히 정비해 올 여름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선택이 후회 없도록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30일 오전 9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 거리퍼레이  
드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리며 곤충에 관한 모  
든 콘텐츠가 총 망라된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곤충과 함께  
하는 특별한 미래'를 주제로 예천 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린다. 김용구 기자



## '오토캠핑의 천국' 청송에서 '푸른 숲의 요정'을 만나다 여름휴가, '힐링' 청송으로 오십시오!

사방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청송은 월매계곡, 신성계곡, 백석탄, 절골계곡,  
용천천 강수욕장, 얼음골 등 수많은 계곡과 맑은 물을 자랑합니다.

낮에는 청송의 숲과 계곡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별 해는 밤에는 청송의 오토캠핑장에서 한여름의 낭만을 만끽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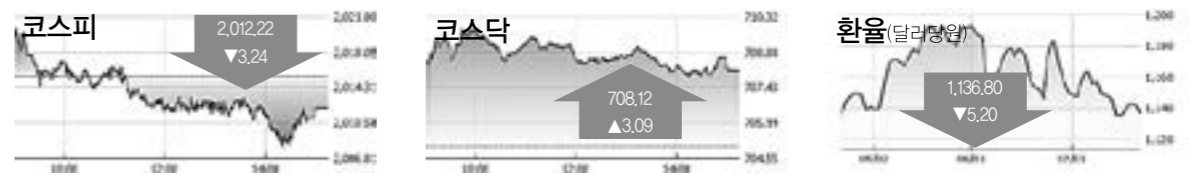


▲ 청송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사과공원) - 자동차야영 150면, 카라반 6면

▲ 청송부남 오토캠핑장 /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 프리 오토캠핑장 21면, 데크 야영시설 44면

예약문의 TEL 02.1600.3183 / www.campingholiday.kr





# 대구상의, 지역기업의 새로운 인재 선발제도 도입 확대

## 학력, 자격증 등 스펙을 초월한 인성과 직무능력 중심 새로운 제도 도입 확대

지역 기업들은 신입직원 채용 시 기존의 학력, 자격증 등의 스펙보다는 인성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균등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재 선발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적성검사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를 채용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경우 인력과 전문성 부족, 고비용, 관리의 어려움으로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새로운 채용방식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러한 선발 검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적성검사인 'K-Test(종합직무능력평가)'를 서비스해 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이 K-Test를 서비스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K-Test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 1개사 44명, 2015년도에 14개 기업·단체·학교에서 779명, 2016년 상반기에는 9개사 256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30여개 기업·단체·학교를 대상으로 2500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매년 K-Test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백화점의 권오준 인사담당자는 "채용에 정자의 인성과 직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를 통해 회사 비전과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한 결과, 높은 업무수행도와 근무성적을 보여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평화정공 인사팀장은 "최근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가 부각되면서 입사 후 타 부서 직원과 협력해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데,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신입직원이 회사 내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하고 성과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입했다"고 한다.

한상철 태창철강 이사는 "기존의 자체 인·적성검사시스템이 오래돼 현재의 인재선발 기준과 다르고 정확성이 떨어져 새로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과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K-Test를 활용하게 됐다"고 한다.

IT업체인 오소의 김재호 이사는 "IT업체의 특성상 직원이 적어 직원 한 사람이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데, 이 K-Test를 통해 선발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에는 대구백화점, 평화정공, 에스엘, 경창산업, 태창철강 등 제조·유통업을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계명대학교 등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새로운 인재선발시스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과 달리 자체 선발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재 선발 비용과 업무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K-Test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이 K-Test는 지역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각 기업(기관, 단체)의 비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인력관리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K-Test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신입 직원 선발 시 직업인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 직무능력 및 직무지식을 검증하는 선발 검사로서, 구직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이다.

또한 대학생과 특성화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성검사는 학생들이 취업 후에 직무수행을 잘 하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자의 인성과 적합한 3개의 직업군을 알려줌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유희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8년차, 수급자 더욱 확대해야

###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 협회장들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장기요양협회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8년차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기요양기안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대구경북의 실시현황, 제도운영 우수사례,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과 의견을 듣고자 개최했으며 김

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등 8명의 협회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 필요성, 시설입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조기 정착 방안 등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급기준과 비용 산정방법 등 시설운영의 지침과 준수사항, 공단의 현안도 전달하고, 협회에 적극 전파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보



건복지서비스부문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8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현장 소통활동을 강화해, 보다 더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유희 기자

## 경북도, 기업규제 사전 컨설팅감사로 한방에 해결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기업불편사항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 발 벗고 나서

경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 기업불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규제개혁 특공대 50여명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도·시·군 감사부서가 주체가 돼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기업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경기 부양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봉장이 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와 관련한 처리절차와 주요 처리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제도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경북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실적을 매년 실시하는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반영해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용구 기자



## 농협, 농심(農心)을 가슴에 품고 농민 곁으로

### 대구농협 이탁구 본부장 명예이장 위촉,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농협이 선두주자로 나선다

농협대구지역본부는 이탁구 본부장이 21일 달성군 현풍면 오산2리 명예이장으로 새롭게 위촉돼 농촌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제공한다.

농협이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위촉식 수여식에서 이탁구 본부장은 김문오 달성군수로부터 현풍면 오산2리 명예이장으로 위촉받았다.

명예이장 위촉을 기념하며 대구농협 임직원들은 오산2리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도배, 쿠션장판 증정 및 LED조명 교체 등의 활동도 펼쳤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대표 및 단체장 등을 농촌 마을 '명예이장'으로,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 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 가는 농촌마을에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대구농협 이탁구 본부장은 "'명예이장'은 기업의 갖고 있는 유·무형 자원과 역량을 마을에 접목해 마을의 숙원사업 지원과 마을 소득

창출에 노력하고 문화·예술·법률·의학 등 직능단체와의 협력으로 맞춤 활동 전개가 가능하며 '명예주민'은 개별농가 어르신과 1:1 말벗과 주기, 함께 식사하기, 안부 전화하기 등 실질적·내실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추후 대구지역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농협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인사를 통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1사1촌운동을 뛰어넘는 도농교류의 신(新)모델로의 도약과 잠재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행복지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유희 기자

## 군위군 농촌여성창업 농산물가공사업장 개소식

### 21일 참맛대추농원서 열려

군위군은 21일 농촌여성창업 농산물가공사업장 참맛대추(대표: 이재해, 우보면 미성1리)농원에서 정보화농업인, 마을주민 등 지역농업인과 농업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참맛대추농원은 농산물가공기술 능력을 갖춘 여성 소규모 창업농가로 가공사업장, 선별작업장, 저온저장고를 갖추고 있다.

이 가공시설에서 대추를 가공, 연간 대추생산량의 15%정도를 대추과자, 대추칩과 같은 가공제품으로 생산했다.

대추를 가공제품으로 생산함으로써 소득의 부가가치의 향상은 2배이상 증대했으며 향후 가공제품의 생산량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잉여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



함으로써 농가의 부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군위군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여성가공창업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여성을 가공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여성의 잠재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 대구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업체 초청 간담회

### 대구·경북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수렴하고 조달정책 통한 지원방안 모색

대구지방조달청은 21일 오후 대구·경북지역의 20개 우수조달물품 업체를 초청,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대구·경북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수렴하고 조달정책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도 조달제도 및 우수

조달물품제도 주요 개정사항, 계약이행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우수조달물품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으로 성공한 기업의 사례, 구매평가서비스의 실시, 조달요청서 발송대상을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계약이행시 직접생산 준수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하인수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요한 제도이다"면서 "대구·경북의 우수제품업체들은 직접생산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일만 기자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7년만에 사업 재개

### 조만간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협의보상

사업추진이 장기 보류됐던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보급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2006년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10년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남지구는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사업이 장기 보류돼 오다 대구시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사업이 재개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LH와 공동으로 공영 녹지용 조정과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 설치 범위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연람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돼 지난 15일 완료됐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는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동안 담보상태였던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인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고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중 국어 중심 국제고로 18개 학급(360명)에 국비를 포함해 375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도남지구는 91만1000㎡ 부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600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2831호와 민간 분양주택 2419호, 단독주택 350호 등 총 56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유희 기자



# 익을... 생각한다

## ■ 광역칼럼

###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뢰입니다



장 태 평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는 정부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정부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의원님들 TV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는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여당 의원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들인 친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친분관계가 깨질까 노심초사 하시면서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의 실질적 대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위기의 안보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로 좌우될 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사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가운영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 운영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부 공식발표가 있기도 전에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허공에 외쳐대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기존 군사시설 내에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설치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협

의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는 없을 듯합니다. 결정에 의문이 들었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후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책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기자들 앞에서 피켓을 세운 기백으로 정책 책임자를 추궁하고 대통령께 따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집권정당의 책임정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조금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표라는 먹이 앞에 굶주린 하이어나 같았습니다. 발표 후 최소한 며칠간은 숙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과 같이 나라를 버리고 지역을 위해 행동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책결정의 주인공 위치에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셨습니까? 이는 지역이주의에 불과합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밖으로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이런 심정을 녹여주고 덮어 줘야 할 정권의 주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는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권의 실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적과 대치된 상황에서 자신이 살려고 물러나는 지휘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국가를 운영한 주체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정치적

주인의식을 가져야할 분들입니다.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역민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자과 피해 등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영남권 신공항에서 놓친 것들을 만회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대통령은 얼마 전 7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대구공항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도로도 더 놓고 다리도 더 놓으라고 하실 셈인가요? 성주 군민들에게 무더기 지원금을 뿌리라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역의 아픔이 해결되는가요? 대한민국 경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어른들이 국가위기를 발목 잡아 지역이익을 챙기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국가를 지켜주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집권세력을 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버릴 수도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아뢰입니다. 빨리 주인의식을 가진 집권세력으로서 국가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정부 관리들에게만 실득작업을 맡기지 말고, 돌팔매를 각오하고라도 설득작업의 최 일선에 나서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하는 멋진 의원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권세력이 하나가 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 미국, 중국, 북한에 멋지게 대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권 잡은 실제 정치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도 창출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 나의제언

### 소방관의 자격



박 현 철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직업들 중 소방관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영예로운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관에게 있어서 도덕성과 청렴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소방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도덕적이며 청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에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비리 같은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따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도덕한 소방공무원의 소식을 들을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들이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지 않는다면, 소방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방관의 자격을 잘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소방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청렴문화 정착과 공직자 윤리 확립에 큰 노력을 쏟고 있다. 직원 간 청렴소통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고, 복무감찰과 같은 스스로에 담금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5S 친절운동(먼저 일어서서 맞이하기(Stand-up),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See), 웃으며 응대하

기(Smile), 신속한 업무처리(Speed), 결과 만족(Satisfaction))을 통해 여는 서비스업 못지않게 대국민 친절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구책들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보일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본연의 업무인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녹아들어 국민들에게 비취 지리라 확신한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방, 그 이미지와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다. 시행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 그 본연의 임무 이전에 아무리 현장에서 날고뛰다고 한들 부패하고 부도덕하다면 그건 기본 소방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지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소방관의 자격이다.

## 원해연 결국 무산... ‘백지화’ 밖에 모르나

가슴을 찢 일이나 또 벌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 중이던 ‘원자력해체기술융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건립 계획을 중앙정부가 백지화시킨 것이다. 경주가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빚자 이에 부담을 느낀 중앙정부가 신공약처럼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핵심 국가시책마다 ‘백지화’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19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원해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통해 원해연 건립 계획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사업 무산이 확정됐다. 예타 결과 원전해체센터의 경제타당성평가(B/C) 지수는 0.28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정책평가(AHP) 또한 0.249로 기준인 0.5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은 물론 정책 타당성도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원해연 경주유치 운동을 전개해 온 경주시는 그동안 행정력과 예산만 허비하면서 정부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셈이 됐다.

원해연이 백지화되자 사업을 주도한 미

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정부 내 원전해체센터 설립은 사실상 멀어졌다. 지난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총력 유치전을 펴왔던 경주시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원전 1기당 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유치운동을 벌여 온 데 대한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월성원전 4기, 신월성원전 2기 등 가동 중인 원전만 6기에 이르고 수십 년간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대 시위가 펼쳐졌던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경주가 넘겨받았다면 당연히 원해연을 경주에 배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런데도 부산의 막무가내식 뺨박작전에 또다시 국책사업 하나가 날아간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중앙정부의 무능력함에 분노가 치민다. 경주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검사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오고 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2030년이면 5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는 결국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버스 운전자 A(57)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7-9km 지점에서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겁을 집었지만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다”며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다. 졸음운전이 핸드폰 조작, 음주운전, DMB 시청과 함께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 만들고 있음이 새삼 입증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평터널 입구에서 2차로로 관광버스를 몰다 앞서 정차 중이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어 승용차 3대도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B(21) 씨 등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과 다른 승용차 탑승자 37명이 다쳤다. 텔레비전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한 시청자들은 사고 버스가 시속 100km로 질주해 와 승용차 한대를 들이받아 날려버리고 두 대는 남작하게 깔아 문개면서 계속 질주하는 소름끼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졸음운전이 빛은 참상이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주체할 수 없이 쏘

아지는 졸음은 탑승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시속 100km로 운전할 경우 1초에 약 28m를 주행하게 되는데 졸음이 올 때 1초 동안 눈을 감았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순간의 졸음 운전이 원인이 돼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운전시 졸음을 예방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쯤은 알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운전 중에는 자주 유리창을 활짝 열도록 한다. 특히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창을 닫아두거나 외부 공기 차단 모드 상태로 오래두는 등 바깥 공기가 제대로 유입이 안될 경우에서는 뇌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 잠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간혹 실내 배스를 없앤다고 향수나 방향제를 비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내 향수나 방향제에는 피로와 졸음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등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혈만하다. 또 졸음이 심할 경우 휴게소 주차장과 졸음 운전자를 위한 쉼터에 주차시킨 뒤 10-20분 정도 수면을 취한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회장 **이종승** | 사장 **황상조**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관망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이야기

자석의 놀라운 힘 사랑도 끌어당긴다



“자석을 갖고 논 다음에 파트너를 만나면 상대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같이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석이 갖는 물리적인 자력(磁力)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의 A&M대학 연구팀은 18-22세의 학생 120명을 상대로 파트너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답하게 했다.

연구팀은 설문 중간에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눠 각각 자석의 이끌림과 밀어냄, 중성적 성질이 있는 블록을 갖고 놀게 했다.

그 결과 자석의 이끌림 성질이 있는 블록을 갖고 놀이를 한 그룹의 학생들이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중성적인 성질의 블록은 빼고 놀이를 하게 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했지만 자석의 효과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과는 뭔가 특별한 사물을 생각하도록 자극받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social priming)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물건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자석은 뇌에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더 높여주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친밀함을 더 강하게 갖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멋진 자연경관에 둘러싸일 때 연인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지고 충실한 마음이 드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얘기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여성 가슴 큰 나라 미국, 가장 작은 나라는 필리핀



세계에서 가장 가슴이 작은 여성은 필리핀 여성들이며 가장 큰 여성은 미국인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성 건강과학 저널(Journal of Female Health Sciences)에 실린, 108개국의 28-30세 여성 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미국 여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 여성보다 가슴 사이즈가 컸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작은 편이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가슴 크기가 작았다.

미국에서 출생한 백인 여성의 중위값은 1668ml이며 4등급으로 나눌 때 가장 큰 등급의 크기는 2986ml로 조사됐다. 반면 필리핀 여성들의 중위값은 111ml이며 가장 가슴이 큰 그룹은 평균 179ml였다.

가슴이 작은 나라에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가, 큰 그룹에는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영국, 폴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 여름철 많이 먹는 음식들 ‘대장균’ 조심하세요!



## 대형마트 김밥대장균 득실 ‘설빙’ 빙수에서도 대장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팔빙수 전문점 ‘설빙’에서 판매하는 인절미설빙·밀크팍설빙·우유얼음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7월 8일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

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49개 제품 가운데 김밥과 콩국수가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락과 냉면·육수, 빙수·얼음도 각 5건이나 차지했다. 이외 음료류(2건), 샐러드(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49개 제품 가운데 46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도 각 1건씩 나왔다. 일부 콩국수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함께 검출됐고, 대장균과 세균수가 함께 검출된 음료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팔빙수 전문점 설빙에서 판매하는 인절미설빙·밀크팍설빙·우유얼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구 달서구 이마트 율배점, 전북 전주 롯데마트 전주점, 광주 서구 롯데마트 상무점, 대전 서구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이 나온 매장은 한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롯데푸드에서 생산하는 오징어파블로그도시락, 체다 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롯데푸드는 대장균이 나온 품목에 대한 생산이 15일간 중단된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업체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1만434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331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70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통

시설(8곳), 기타(20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된 커피전문점도 있었다. 카페미아모(강원 태백), 요거프레소 구미도량점(경북 구미)·중마점(전남 광양)·마동점(전남 광양), 망고식스 천부원점(전남 순천), 카페베네공주점(충남 공주)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사용·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에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신상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카페베네 광주 신창점(광주 광산구), 탐앤탕스 하남점(광주 광산구), 달콤커피 첨단점(광주 광산구), 카페드림점(광주 광산구), 달콤커피 노대점(광주 남구), 망고식스(광주 서구)·신촌점(서울 서대문구), 던킨도너츠(울산 울주)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 살빼기, 더운 여름이 좋은 이유 4가지



###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살빼기에 나서는 동기가 된다

미국의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Women’s Health)’가 “뚱뚱해 줄이기에 요즘이 좋은 때”라며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다이어트가 더 쉬운 이유 4가지를 소개했다.

■뜨거운 날씨는 식욕을 억제한다  
아이스크림은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한 계절에는 냉장고나 식료품 저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적은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더위가 식욕을 꺾어주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30도의 뜨거운 날 운동을 한 사람은 섭씨 10도의 환경에서 운동을

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높으면 아무리 힘든 운동을 한 후에도 식욕이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활동량이 늘어난다  
사람들의 활동량은 봄과 여름에 최고를 기록한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더 많이 드러내는 시기다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성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살빼기에 나서는 동기가 된다.

■기분에 따른 폭음과 폭식이 줄어든다  
겨울은 우울증의 시즌으로 불린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연구팀이 계절성 기분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폭식의 27%가 겨울철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하는 사람의 94%가 겨울철 동안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고 90%는 추울 때 보통보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냄새 유발 구강건조증 완화에 ‘썸바귀’ 효과적



썸바귀가 구강건조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썸바귀 추출물을 투여한 쥐 그룹에서 침 분비율과 아밀라제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진청은 구강건조증을 유발한 흰쥐에게 6일 후 썸바귀 추출물을 10일간 매일 1회 투여한 결과 침샘 무게가 590mg으로 썸바귀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군의 450mg보다 31% 증가했다.

구강건조증 유발 후 16일이 지난 흰쥐에 썸바귀 추출물을 1회 스프레이로 구강에 뿌렸을 때 침 분비율이 79.7μl/min에서 138.3μl/min로 분당 58.6μl/min 더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침 분비율이 약 33.9% 증가됨에 따라 침샘의 세포막 단백질과 아밀라제 양이 늘었다.

이 연구결과는 특허출원했으며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준비중이다. 식의약 소재로 개발되면 당뇨병 환자가 구강건조증으로 겪는 입냄새 문제,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은진 기자

## 운동만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 비만...해결 방법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다이어트에 매진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고온현상으로 인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바캉스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핫팬츠와 미니스커트, 비키니를 입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돼야 하지만, 잦은 요요현상과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허벅지나 복부, 팔뚝, 종아리와 같이 부분 비만으로 대표되는 신체 부위들은 몸무게가 줄어도 사이즈가 크게 줄어들지 않거나 셀룰라이트가 없어지지 않아 다이어트의 골칫거리로 꼽힌다. 정상체중이지만 부분적으로 체지방이 두껍게 쌓인 부분 비만의 경우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비만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건강상으로도 치료가 시급하다.

여름철을 맞아 여성들 사이에서는 지방분해 주사가 대두되고 있다. 다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시술 전 정확한 진단, 시술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의료진을 선택해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체, 하체, 복부 등 신체 부위별 비만 정도를 파악해, 단순 체중감량이 아닌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 사망 원인 3위’ 자궁경부암

### 조기 발견땐 완치율 90% 만 12세 여아 예방접종 실시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과 질이 만나는 부위인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을 말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진단되는 여성 암으로, 유방암과 폐암에 이어 암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자궁경부암은 1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90%에 이르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세포검사(Pap test)와 액상세포검사(Thin prep examination)가 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법인 세포검사(Pap test)는 자궁경부의 육안적 검사와 더불어 간단하게 질경을 삽입해 자궁 경부 및 질 내의 세포를 채취, 현미경으로 관찰해 암세포를 가려내는 방법이다.

비용도 싸고 간단하며 단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채취방법 및 장소, 판독 능력에 따라 결과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질병이 있음에도 음성으로 나타나는 위음성률이 약 10-30% 정도인 검사이다.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Thin prep examination)는 기존 세포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법이다.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액체 상태의 검체에서 단층의 세포를 얻기 위한 시스템으로 막 여과법의 원리를 이용해 세포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단층 슬라이드를 제작한다. 이는 현미경의 시야를 줄여 판독과정의 오류를 줄여주며 보존액에 세포를 변성 없이 100% 효율적으로 채취해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 여성변비는 똑같아? 생애주기 따라 천차만별

변비라고 다 같은 변비가 아니다. 고3 수험생, 직장에 막 발을 들인 사회초년생, 할머니 등 여성들이 겪는 변비는 원인도, 증상도 천차만별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변비가 많은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여성 변비는 사춘기, 임신과 출산, 갱년기, 노화 등 여성이 맞닥뜨리는 생애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 변비를 자각하는 10대 수험생  
변비를 처음 자각하는 시기이다. 주로 생활 패턴이 변화하는 고3 수험생일 때가 많다.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불규칙한 식습관, 학업 스트레스 등이 동반되면서 변비를 부른다.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만성 변비로 이어지거나 치질 등 2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배변주기가 길다고 느끼면 의사, 약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제를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급성변비 잦은 20-30대 직장인  
변비 환자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지만, 특히 20대에서는 남성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이 시기의 여성은 다이어트, 임신, 출산,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다. 이 때 경험하는 변비는 대부분 급성 변비이다. 생활습관부터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변비약을 먹으면 약에 의존하게 돼 복용량이 늘어날까 우려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믿을 만한 치료제를 용법과 용량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 치료제는 비사코닐, 피코실페이트 나트륨, 프루칼로프라이드, TD-5108, 도큐세이트 나트륨 등의 성분이다.

■ 만성변비 시달리는 40-50대  
갱년기를 맞게 되는 중년 여성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항문의 구조적 문제가 배변 습관에 영향을 미쳐 변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30대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비를 방치하면 만성화되기 십상이다.

■ 노화가 원인이 되는 60대 변비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아가 부실해져 먹는 음식량이 줄어든다. 또한 배소장으로 물을 적게 마시게 된다. 모두 변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다른 질병 때문에 먹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고혈압약에 흔히 쓰이는 칼슘채널차단제와 이뇨제, 일부 우울증 치료제 등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김주수 의성군수 세계유교문화재단 제4대 이사장 선출

“9개 시·군 협력해 상생 발전”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19일 개최된 2016년도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이사장 한동수)임시총회에서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재)세계유교문화재단 이사장 선출 및 재단 대표이사 선임 심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 돼 의결 됐으며 황재천 (재)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연임됐다.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은 고유환 문경시장,

박노욱 봉화군수, 이정백 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택 영양군수, 장옥현 영주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안동MBC 안택호 사장이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동수 청송군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세계유교문화재단 한동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신도청시대에 발맞추어 9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은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과 안동MBC가 유교문화권이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본 재단에서는 고가음악회, 라디오엔터테인먼트, 캠퍼스축제, 지역발전포럼, 인문학콘서트, 뮤지컬, 축제, 시장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유교문화권에서 전개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 영양군 김설화 주무관, 공모전 우수상 수상

新 도청시대 도민 제안

영양군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김설화 <사진> 주무관은 新 도청시대 ‘2016 상상과워! 새천년 경북’ 제안 공모전에서 공무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200만원을 거머쥐었다.

이번 제안 공모전은 새로운 도청시대를 맞아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50일간 시행됐으며 최종 심사까지 올라온 9건의 공무원 제안 중 김설화 주무관의 ‘경북 100년 전통 라이선스 와이너리(막걸리 양조장) 투어’ 제안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제안의 내용은 각 시군



의 전통 명맥을 이어 온 막걸리 양조장을 하나의 테마로 관광 상품화해 살아 숨 쉬는 산업관광의 메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설화 주무관은 2013년 12월 16일자로 공직사회에 입문, 매사 성실한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 확보 사업에 주력을 다하는 와중에도 시책창조팀 참여 및 도민 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군정 및 도정 발전에 힘쓰고 있다.

권윤동 기자

## 미래창조 인재양성 문경시 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유)대성건설 500만원 기탁  
흥남건설(주) 200만원 기탁  
바르게살기문경시청년회 200만

미래창조의 인재 키우기(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성건설과 20일 흥남건설 및 바르게살기청년회에서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고유환)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유곡동 (유)대성건설(대표 김종원)에서는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흥남건설(주)(대표 권철명)에서 200만원, 바르게살기문경시청년회(회장 하대복)의 회원40여명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해 왔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종원 대표와 권철명 대표는 예전부터 장학회 후원을 마음먹었으나 이제 기회가 돼 장학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면서 장학금을 전해 왔고, 특히 바르게살기청년회는 지난 지역에서 개최된 mbc꿈나무추경대회에서 운영한 음료수 판매 등 수익금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기탁금을 전해왔으며 지역의 청년단체로 질서,진절,정결운동 전개로 새문명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유환 이사장은 기탁식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정성을 보태주시 사업체 대표님들



과 바르게살기청년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장학사업 전개와 함께 명품 교육도시 문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성 기자

## 청송 동네행복지킴이, 행복한 지역사회건설에 앞장서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회장 권오영)는 지난 20일 2016년 동네행복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10가구를 방문해 각 가구마다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동네행복지킴이 사업”은 소외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 사회통합과 안전망을 구축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집안청소 및 목욕봉사, 생필품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는 매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 개최나 자유수호운동대회 등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행복한 지역사회건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권오영 회장은 “아직도 지역에는 작은 나눔과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구 기자

## 봉사인 듯 아닌 듯 오늘 같은 봉사가 좋아요!

군위 금성초 봉사동아리  
카리타스 요양원 방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 ‘영웅’이라고 한다. 소외된 사람을 도우면 ‘천사’라고도 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도 ‘영웅’이 되지 않는, 소외된 사람을 도와도 ‘천사’가 되지 않는 봉사가 당연한 사회에 살고 싶은 16명의 천사들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각종 식재료와 리코더, 손가락에 담아냈다.

군위 금성초등학교 6학년은 20일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금성면 카리타스 요양원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떠났다. 이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리코더 합



주-아리랑, 고향의 봄 변주곡), 예쁜 다과회(수박화채, 다라이 빙수), 마음과 몸 안아드리기(맛사지 해드리기, 어르신 상담사 활동) 등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됐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아이들의 작은 한 걸음. 이제 시작이다.

박재성 기자

## 상주시 학부모의 아름다운 도전

봉사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

2016년 학부모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상주시에 봉사활동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상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목련학부모회 자원봉사단(회장 고연선)’은 지난 4월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문)와 연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홀로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자원봉사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상영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한울자원봉사단(회장 남미라) 역시, 5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한울자원봉사단은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비롯해 상주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활발히 활동해 학부모 자원봉사단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학부모연합회 고연선 회장은 “학부모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녀들 역시 자원봉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주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에 활발히 참여, 자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독

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학부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 상주 지역 어르신과 주민 건강관리 현장방문

모서면 주민건강 증진  
위한 행복면정을 추진

상주시 모서면에서는 20일 대표1리에서 상주시 보건소와 김천의료원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현장을 방문해 무료진료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과 건강관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주민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서면에서는 상주시 보건소와 협조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일

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통해 각종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도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강세마를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의식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원거리 소재 병의원을 찾아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건강 검진과 취약지역 무료진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허남영 모서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김중국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폭염 대비 경로당 방문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당부

김중국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안강읍장)은 지난 18일 안강읍 민원복지과(과장 남미경) 직원들과 함께 관내 경로당 22개소를 방문했다.

계속되는 더위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여쭙고, 수박을 전달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를 체크하고, 폭염 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및 조치를 지시했다.

김중국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책임유연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더욱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한 기자

# 대구지역 첫 수성대 축구단 창단



## 40명 규모 선수단 창단

대구에서 처음으로 대학 축구단이 창단됐다. 수성대학교는 21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김선순 총장과 대구시체육회 권오준 사무처장, 수성대 축구단 김기만 단장, 축구선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수성대 축구단의 사령탑은 생활체육레저과 김기만 교수가 맡았다. 축구단 규모는 40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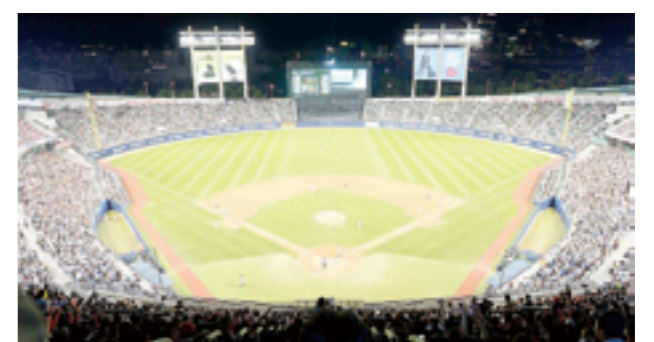
에서 우수한 고교 축구선수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팀 운영을 위해 전공심화 학위과정 개설도 진행 중이다. 수성대는 단순히 축구만 하는 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축구교실 개최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창단식에서 대구시체육회는 창단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대구스포츠발전위원회 심상형 회장은 축구단 전용 대형버스를,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는 사인볼 등을 기증했다. 수성대 축구부는 창단 준비 과정에 개최된 제주전국체

전에서 대학부 8강에 올라가는 등 잠재력을 인정 받았다. 김기만 단장은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축구부가 없는 곳여서 지역 고교 축구의 명성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축구단이 고교와 프로 축구, 실업 축구를 연결하고 지역 축구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창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순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축구단 창단으로 우리 대학이 지역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축구단도 좋은 성과로,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희 기자

## 마라도나, 또 아르헨티나 감독직 원한다... '무보수'

전설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56)가 또다시 아르헨티나대표팀 지휘봉을 노린다. AP통신은 21일(한국시간) "마라도나가 무보수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사령탑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016 코파아메리카에서 결승까지 올라오나 질레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해 우승컵을 놓쳤다. 팀의 간판 스타 리오넬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까지 사임하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크게 흔들렸다. 이미 한 차례 아르헨티나대표팀을 이끌었던 마라도나는 소망수로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마라도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팀을 맡았다. 아르헨티나는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해 8강까지 순조롭게 진출했으나 독일에 0-4로 패해 4강행에 실패했다. 대패의 여파로 마라도나 감독도 지휘봉을 내려놨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그는 "만약 내가 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아르헨티나축구협회가 판단한다면, 나는 감독직을 맡아 무료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후임 감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마르셀로 비엘사 라치오(이탈리아) 감독, 미겔 앙헬 루소 감독, 마르셀로 갈라도 리버플레이트 감독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마라도나가 관심을 표하면서 아르헨티나축구협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아르헨티나대표팀은 23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뉴스시

## 도박에 성추문까지... KBO리그 '잔인한 7월'



올스타 휴식기를 전후로 벌어진 잇따른 악재로 KBO리그가 울상이다. '잔인한 7월'이다. 그간 프로야구 선수들과 얽힌 크고 작은 사건이 적잖았지만 2016년 7월은 유난히 많다. 야구팬들에게는 충격이다. 올스타 휴식기를 목전에 둔 지난 12일, kt 위즈의 베테랑 타자 김상현(36)이 음란행위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 차량을 세우고 여대생 A(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kt는 사건이 알려지고 하루 뒤인 13일 김상현에게 임의탈퇴 징계계를 내렸다. 또 지난 20일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안지만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지인에게 돈을 대준 혐의로 대구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삼성 구단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의 사업자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친구가 차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가뜰이나 해외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안지만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은 야구팬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겼다. 안지만의 검찰 조사 소식이 알려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NC 다이노스의 잠수함 투수 이태양(23)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장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2012년 초 이후 4년만에 프로야구에 드러운 승부조작의 그림자다. 2012년 프로야구는 LG 트윈스 투수였던 박현준, 김성현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충격이 휩싸였다. 당시 박현준과 김성현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부조작 파문이 불거진 직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박현준, 김성현에게 야구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LG는 법원 판결 직후 박현준과 김성현을 퇴출했다. KBO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박현준과 김성현에게 영구실격 제재를 내렸다. 당시 KBO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년만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미 지난해 말 프로야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선수들 탓에 몸살을 앓았다. 임창용(40·현 KIA 타이거즈)과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14년 11월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삼성에서 방출당한 임창용은 올 3월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도박으로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징계를 마치고 리그에 복귀했다. 올 시즌 800만 관중을 노리는 프로야구계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뉴스시

# '하루 2세이브' 오승환, 완벽한 9회 만들었다

##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 결들이며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철벽 마무리 오승환(34)이 하루에 2개의 세이브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팀이 4-2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를 결들이며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오승환은 지난 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17일만에 세이브를 챙겼다. 지난 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부터 11일 밀워키전까지 4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다 지난 16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1이닝 1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은 2경기만에 다시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이날 3명의 타자에게 15개의 공을 던진 오승환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5마일(약 153km)까지 나왔다. 오승환은 샌디에이고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무심한 표정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3-2로 앞선 9회초 상황에서 출격했다. 1점차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1이닝을 막는데 11개의 공이면 충분했다. 첫 타자 알렉시 아마리스타를 초구에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낸 오승환은 다음타자 알렉세이 라미레스와 라이언 험프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어깨가 풀린 오승환은 더블헤더 1차전보다 더욱 빠른 96마일(약 154km)짜리 포심패스트볼을 던지기도 했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68로 낮아졌다. 오승환의 깔끔한 마무리 솜씨로 3연승을 달린 세인트루이스는 50승(44패) 고지를 밟았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2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벌어진 밀워키와의 홈경기에서 3루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팀이 0-2로 뒤진 2회말 무사 2루에서 첫 타석에 나온 강정호는 밀워키 선발 체이스 앤더슨을 상대로 유격수 방면의 내야안타를 날렸다. 그러나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42로 소폭 올랐다. 이날 워싱턴 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펼쳐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5-5로 맞선 연장 11회말 대타로 나섰다. 시애틀 벤치는 연장 11회 선두타자로 애덤 린드 타석이 돌아오자 이대호를 대타로 내세웠다. 최근 타격 슬럼프를 보이고 있는 이대호는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지난 1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부터 전날 화이트삭스전까지 4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던 이대호는 이날도 안타 생산에 실패했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75에서 0.273(194타수 53안타)으로 떨어졌다. 시애틀은 이대호의 후속타자 레오니스 마틴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홈런을 작렬해 6-5로 이겼다. 시애틀은 48승(47패)을 올렸다.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4)는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등재됐다. 올해에만 벌써 3번째 DL에 올랐다. 뉴스시

# 두피에 흡수가 잘되는 미세구조 침투캐리어

MORETURN Hair Care SET



## 명품샴푸 모리턴 毛 ReTurn

피부(PH)에 가까운 약산성 샴푸&헤어토닉  
 국내산 한방 추출물 홍삼, 당귀, 황기 98.34%  
 천연식물성 식이유황 "MSM" 함유

한국표준협회(KSA) 5년연속 으뜸상품!!  
 U.SFDA 中CFDA 위생허가 등록제품!!

모리턴은 다양한 기관에서 인정받은 우수제품입니다.

- ◆ 미국 FDA OTC Drugs 및 중국 CFDA 위생허가등록.
- ◆ 한국표준협회(KSA) 5년(2012~)연속 으뜸상품.
- ◆ 대한아토피협회 추천제품 (2013~2015)
- ◆ 중소기업진흥공단 HIT500상품선정
- ◆ 한국경제 화장품부문 브랜드대상 수상.
- ◆ KAT 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우수제품.
- ◆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2년연속 최우수기업선정.
- ◆ 보건복지부 장관상 / 뉴스메이커혁신리더대상
- ◆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제품 (2014)
-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타이틀스폰서.
-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4년 연속 공식파트너.
- ◆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 (2014~2015)



모리턴샴푸 & 헤어토닉 "헤어케어전문브랜드"

모리턴 ▾

# 문의 080-850-9733



www.ks1004.kr